

“중앙의 다음 100년을 시작합니다.”

중앙대학교 총동문회 비전선포식 “THE NEXT 100” 성황리에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의 새로운 변화와 실행을 선언하고, 중앙대학교의 다음 100년을 함께 설계하며, 그 비전을 지속시킬 기반을 만들어 가기위한 새로운 출발의 자리”

총동문회 비전선포식‘THE NEXT 100’이 8월19일(수) 오후7시부터 모교 서울캠퍼스 체육관에서 5백여 명의 동문과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총동문회가 마련한 미래 비전 선포식은 동문사회의 새로운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 동문들의 연결과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대학교 발전재단을 설립해 대학의 다음 100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는 총동문회에서 김부섭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전원,조순태 상임고문 등 고문단, 김정수 약학대학동문회장 등 각급동문회장단 등이

참석했고, 모교에서는 박세현 총장과 부총장단, 교무위원 그리고 학교법인의 박태원,고석범 이사가 참석했다. 국회의원 김준혁(사학’86),백선희(사회복지’87) 동문,산업은행 회장 박상진(법학’82),수협은행감사 최기정(법학’82),KBS 보도본부장 김대홍(정치외교 ’85),연합뉴스 보도국장 노효동(영문’88) 동문도 자리를 함께했다.

재학생들은 서울캠퍼스 김주란 총학생회장, 다빈치캠퍼스 안하영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 간부들이 모두 참석해 행사장은 오후6시를 넘기면서 부터 열기가 차올랐다.

SBS 이일환(신문방송’92)동문의 사회로 시작된 비전선포식은 식전공연으로 장성경(성악’93) 동문이 이끄는 ‘늘해랑 리틀싱어즈’의 무대로 열렸다.

주요 참석자 소개에 이어 등단한 김부섭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바뀌지 않고, 우리가 준비

하지 않는다면 수십 년 뒤 중앙대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그 질문 하나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며

“첫째, 17대 총동문회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17개 상임위원회가 넉 달 넘게 토론했고 정리한 실행 목표로 선언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다.

둘째, 중앙은 100년 뒤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센테니얼 이노베이션 2116」이다.

재단과 대학과 총동문회가 처음으로 한 방향을 보기로 뜻을 모았고, 추진위원회가 그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셋째, 그 약속을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중앙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구상이다.

중앙을 아끼는 마음은 지금까지도 언제나 있었다. 다만 그 마음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하나의

“동문회보는 동문여러분이 내주시는 회비와 광고 협찬으로 만들어집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이어주고 동문 간의 끈끈한 정을 전하는 소통의 장이자 네트워크의 중심인 동문회보가 1973년 4월5일 창간 이래 이번으로 제362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동안은 회보 제작비 절감을 위해 외주업체에 광고대행을 맡겨왔으나, 무리한 광고계약 요구 등 동문여러분께 민폐가 반복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이번 호부터 총동문회 사무처에서 직접 동문여러분의 광고 협찬을 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동문회보를 제작하기 위해서 연간 72건의 광고가 필요합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광고협찬을 부탁드립니다.

협찬해 주신 광고는 총동문회 홈페이지에도 연계해서 게재해 드립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동문회보는 언제든지 열람해 볼 수 있어 광고 역시 일회성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12만 동문에게 발송되는 이메일로도 동문회보는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 활약하는 2만여 동문(3만 부로 확장예정)에게 전달되는 동문회보는 동문 여러분의 기업 홍보와 상품광고 그리고 소식을 알리는 가장 친근하고 신뢰도 높은 매체로 동문들에게 직접 닿는 확실하고 뜻깊은 홍보 채널입니다.

또한 동문여러분의 소중한 광고 협찬금은 더욱 알찬 동문회보 제작과 동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가치있게 사용됩니다. 동문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동문회보 광고 협찬 안내

모집 분야

동문 기업/사업체 홍보, 상품 광고, 개인 축하 및 격려 광고

신청 기한 : 제한없음

문의 및 접수 : 총동문회 사무처

(02-521-1199 / 홍보담당 김영은 부회장)

힘이 되지 못했다.

학교와 각 단과대학이 오래 품어 온 과제들을 어떻게 이어서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동문 여러분께 어떻게 투명하게 알려 드릴 것인지 —

지금 그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해 드릴 수 있을까 오래 고민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공유하고자 오늘 비전선포식을 하게 되었다.” 말했다.

이어 박세현 총장은 “대학의 경쟁력은 구성원과 동문의 힘에서 나온다”며 “학교와 동문회가 긴밀히 협력해 중앙대학교의 미래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태원 재단이사도 “학교와 동문, 법인이 삼위일체가 돼 중앙대 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인 VISION Presentation에서는 사전 제작된 3편의 영상물이 주제별로 상영되었다.

‘Vision 2030 Plus’에서는 앞으로 총동문화는 무엇을 할 것인가 ?

17개 분과를 중심으로 동문을 다시 찾고, 연결하고, 참여시키는 17대 총동문화의 새로운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Centennial Innovation 2116”에서는 중앙의

다음 100년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중앙대학교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미래 100년의 방향을 발표했다.

“CAU Foundation “에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사람과 세대가 바뀌어도 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미래 자산과 신뢰를 축적하는 “중앙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상물이 하나씩 상영될 때 마다 모든 참석자들은 열띤 박수를 보냈다.

이어 각 단과대학동문회를 대표한 동문들이 수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안이 이어졌다.

행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무대에서는 김부섭 회장,박세현 총장,박태원 이사,김주란 학생회장,안하영 학생회장 다섯 명의 대표들이 등단해 미래 비전을 선언하는 축포를 터뜨렸다.

장내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지막 순서로 모교 음악대학 학장을 지낸 허재영(관현악'77) 동문과 6명의 관현악과 동문, 재학생으로 구성된 관악양상블의 연주가 대미를 장식하고 이들과 함께 교가를 합창하며 비전선포식은 막을 내렸다.

총동문화는 앞으로 전체 동문 36만 명을 대상

으로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동문사회의 역량을 대학 발전과 후배 세대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한 동문은 “이번 비전 선포식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중앙대학교의 다음 100년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는데 공감한다.”며 “행동과 비전, 시스템을 통해 약속을 실현하는 동문사회가 만들어 저야한다”고 말했다.



박세현 총장

박태원 재단이사



체육관을 가득 채운 동문들



식전공연 : 늘해랑 리를 싱어즈



축하공연 : 관악 양상블

중앙대학교 총동문화, 신한카드와 동문 제휴카드 출시



중앙대학교 총동문화는 신한카드와 제휴해서 동문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7월 15일 오전 11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비전홀에서 진행된 출시 기념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김영일 신한카드 그룹장, 이승목 신한은행 그룹장 등 신한금융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총동문화에서는 김부섭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 호 연극영화학과 동문화장 그리고 모교 박세현 총장과 재학생을 대표해서 윤채영 프로골퍼(대학원 재학), 김주란 서울캠퍼스 학생회장,안하영 다빈치캠퍼스 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일재(경제'95) 총동문화 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시 기념식은 내빈 소개와 총동문화장 환영인사에 이어 동문 신한카드 출시 축하영상을 시청하고, 박세현 총장,진옥동 회장,임 호 회장의 축사를 듣는 순서로 이어졌다. 다음 순서로 동문카드 출시 협약서에 김부섭 회장과 박창훈 사장이 각각 서명하고 교환한 후에 진옥동 회장이 김부섭 회장과 박세현 총장에게 최초 회원으로 제휴카드를 전달하고 기념 촬영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총동문화 김부섭 회장은 출시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휴카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중앙인이라는 자부심의 상징이며, 동문들의 참여를 장려사업과 모교 발전으로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라고 말하고 “따라서 제휴카드의 출시는 중앙대학교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연결하고, 새로운 100년을 함께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앙대학교 동문 신한카드는 ‘중앙인의 프라이드를 카드 한 장에 담는다’는 컨셉으로, 상품 혜택에 따라 ‘더 베스트 XO(The Best XO)’, ‘디스카운트 플랜플러스(Discount Plan +)’, ‘폴리’ 3종으로 출시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를 반영했다.

우선,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더 베스트 XO 카드’는 국내의 가맹점 이용 시 포인트를 적립

해 주는 마이신한포인트형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스카이패스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연 1회 전세계 상품권 20만 원 모바일 교환권, 플래티늄 호텔 외식 23만 원 이용권, 마이리얼 트립 23만 원 이용권, 마이신한 포인트 20만점 적립, 에어프리미어 항공 25만 원 이용권(마이신한 포인트형), 대한항공 1만 마일리지 적립(스카이패스형) 중에 고를 수 있는 기프트 옵션 서비스가 제공된다.

‘디스카운트 플랜플러스 카드’는 고객들의 일간, 월간, 연간 소비 일정에 맞춰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식음료(F&B) 업종에서 시간대별 할인(Time Plan)과 마트,온라인 쇼핑, 잡화,주유소,택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일별 할인(Daily Plan), 매월 결제하는 아파트 관리비,통신 요금,디지털 구독,멤버십 이용료 등에서 월간 확인(Monthly Plan), 소비 주기가 다소 긴 자동차 정비,테마파크 업종 등에서 연간 할인(Annual Plan)을 받을 수 있다.

‘폴리 카드’는 국내 전 가맹점에서 0.9% 할인을 업종 제한 및 전월 실적 조건, 할인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실속형 상품이다. 월4회(총 6천원 할인) 추가 할인 쿠폰 서비스와 고객별로 전월에 가장 많이 사용한 가맹점에서 이용 횟수

에 따라 마이신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중앙대 동문신한카드는 중앙대학교 심벌과 마스코트 캐릭터 ‘푸앙이’(푸른 중앙의 줄임말)를 활용한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차별화해 동문들의 자부심을 반영했다.

‘더 베스트 XO카드’ 연회비는 마이신한포인트형이 국내 29만7천원, 해외 검용(마스터카드) 30만 원이며 스카이패스형은 각각 31만7천원, 32만 원이다. ‘디스카운트 플랜플러스 카드’는 각각 5만 원, ‘폴리 카드’는 각각 1만5천원, 1만8천 원이다.

중앙대학교 동문신한카드는 중앙대학교 총동문화 홈페이지(www.cau.ac.kr)에서 서비스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문회원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북미주동문화연합회 제19차 총회 성료

신임 회장에 홍육기·이사장 안경호 선출, 뉴욕 경제단체들과 MOU 체결도



중앙대학교 북미주동문화연합회(회장 최원철/경영'76) 제19차 총회 및 이사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뉴저지 포트리 소재 더블트리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총회는 미국,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지역의 18개 동문화 연합회 주최로 마련되어, 동문과 가족을 포함해 20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북미주동문화연합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역별 동문화 간 협력 강화와 모교 발전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또한 신임 회장에 홍육기(농업경영'74/에틀랜드동문화회장)동문을, 신임 이사장에 안경호(토목공학'72/젠사시스템동문화회장) 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동문화에서 김부섭 회장과 이대영 상근부회장,박현욱 재정위원장이 참석했고 모교에서는 박세현 총장과 이무열 대외협력본부장,권영욱 차장, 그리고 학교법인에서 박태원 이사, 이어룡 이사가 참석했다.



김부섭 총동문화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이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시대 “CAU Centennial Innovation_2116 전략”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중앙대학교 총동문화가 설계하는 다음 100년으로 학교와 재단이 비전을, 동문은 연결과 참여의 힘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총동문화는 중앙대의 미래와 비전을 만드는 실행파트너로 10만 동문이 움직이면 중앙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북미주동문의 참

여를 강조했다.

박세현 총장은 “캠퍼스 내 단일 공학·연구시설로는 최대 규모인 ‘미래 AX 공학관’을 건립하고, 반도체 클린룸과 GPU 서버실 등 AI·빅데이터 관련 연구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며 북미주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최원철 북미주동문연합회장은 “올해 행사는 박세현 총장을 비롯해 김부섭 총동문화장, 박태원 두산그룹 부회장 겸 재단이사,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겸 재단이사 등이 대거 참석하고, 미전역 13개 주에서 200여 명의 동문이 모이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회장은 “특히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의 주요 경제단체들과 중앙대 총동문화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 기간 중 총동문화가 업무협약을 맺은 뉴욕의 주요 경제단체는 브루클린상공회의소, 대뉴욕상공회의소, 정통유대인상공회의소, 미동북부한인상공회의소 등이며, 뉴욕주경제개발청(ESD)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됐다.

중앙대학교 북미주동문화연합회 총회는 2년마다 격년제로 열리며 1988년 시작해 올해로 19회를 맞고 있다.

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대학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동문간 학술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다음은 학술대회 주제와 발표자 명단이다.

“임상에서 강단으로 : 미국 간호대학 교수가 되기까지의 여정” • 조현진(Maria Cho,'85/캘리포니아주립대 이스트베이캠퍼스 교수)
“위기가 오기 전에: 누구도 정신건강 문제를 홀로 마주하지 않는 미래를 위하여” • 심전경('92/존스홉킨스대학교 박사과정, 텃거스대 임상강사)
“간호교육에서의 디지털 플랫폼과 다중 양식 학습도구 탐색 : 미래 간호교육자를 위한 실무적 통찰” • 홍민정('04/퍼듀 글로벌대 학교 간호대 교수)
“치매 연구에서의 인공지능(AI) :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고찰” • 고은정('09/뉴욕대 로리마이어스 간호대학 연구프로젝트 매니저)
“동료 간호사의 물질사용 문제에 대한 간호사의 보고 의도 탐색” • 심소연('09/에틀랜드대 박사과정)
“청년층의 대마초 사용에 대한 단기 동기강화면담의 효과” • 장찬우(Christian Jang,'11/뉴욕 컬럼비아대 박사과정)
“진행성 만성신장병에 대한 신장 전문간호사의 역할 : 다학제 신장관리 프로그램(PEAK)의 경험과 교훈” • 김효림('14/로고신 연구소 전문간호사)

간호대학 북미주동문화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간호대학 북미주동문화(이성순'74)가 간호학과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간호대학 북미주동문화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8월9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호텔 컨선홀에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심전경('92)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부섭 총동문화장과 강용원(무역'83) 뉴욕동문화회장의 축하,이성순 회장의 환영사 그리고 모교 간호대 교수인 류은정('88)동문이 최은희

(‘83)간호대학동문화장과 김지수('98)모교 간호대학장의 축사를 대독한 후 “간호대학 50년, 함께할 50년”의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북미주 각 지역의 대학과 임상 및 연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7명의 동문이 간호교육, 정신건강, 인공지능(AI), 치매, 물질사용, 만성신장병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북미주에서 임상, 교육 및 연

동문장학재단 임시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중앙대학교 동문장학재단(이사장 김부섭 총동문화장) 임시이사회가 7월29일 오후5시30분 강남구 신사동 소재 연타발 압구정본점에서 열렸다.

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차 이사회 회의결과와 장학재단 현황보고에 이어 임원 연임 및 선임의 건과 장학금 지급의 건,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새로운 임원은 남효천(영어교육'83/한국능력협회 이사/총동문화 장학위원장) 동문과 엄재현(경제'93/공무원연금공단 해외투자팀장/CAU'93동기회장) 동문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장학금 지급은 생활이 어려운 재학생을 대상으로서류심사와 면담을 거쳐 1인당 4백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각급동문화 사무총장단회의 개최

중앙대학교 각급동문화 사무총장단(총무) 모임이 총동문화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진수/경영'84/바른재무컨설팅(주) 이사) 주관으로 8월 6일저녁 5시부터 흑석동 총동문화 사무처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각급동문화 사무총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위원장 환영사, 각급 사무총장 인사말, 모임 취지 및 총동문화의 각급 동문화 지원계획 안내, 총동문화 사무총장 인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현재 총동문화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작업을 수행 중인 김정석(토목공학'87/제이디터솔루션 대표) 동문이 참석해 제17대 총동문화 체제에서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개발중인 ‘총동문화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각급 동문화에 직접적으로 지원 되는 부분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김창한 총동문화 사무총장은 제17대 총동문화가 처음으로 출시한 ‘동문계휴카드(신한카드)’에 대한 취지와 목적 그리고 가입 방법을 전달하고이어서 오는 8월 19일 예정된 중앙의 다음 100년을 위한 ‘THE NEXT 100 비전 선포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총장단 모임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소속 동문화 및 직책	학과	학번
이상길	81학번동문화 사무총장	물리학과	1981
이관형	총동문화 사업위원장	체육교육학과	1981
조현미	영어교육과동문화회장	영어교육학과	1984
김진수	총동문화 총무위원장	경영학과	1984
백찬현	경영경제대학동문화 사무총장	경영학과	1986
김성우	ROTC총동문화 사무총장	경영학과	1996
박상후	사진학과동문화 사무총장	사진학과	1986
김정석	홈페이지 개발자	토목공학과	1987
김창한	총동문화 사무총장	경제학과	1987
최지연	간호대학동문화 사무총장	간호학과	1989
염은경	음악대학동문화 사무총장	피아노과	1989
최상묵	토목공학과동문화사무총장	토목공학과	1992
구선숙	총동문화 총무부 위원장	무역학과	1994
김영은	음악대학동문화 수석부회장	관현악과	1995
한석준	인천동문화 사무총장	법학과	1996
이강을	의과대학동문화 사무총장	의학과	1998
박해신	경영전문대학원동문화 부회장	경영전문대학원	2022
김태연	경영전문대학원동문화 사무총장	경영전문대학원	2022



경찰 동문 초청간담회

총동문화 김부섭 회장은 동문장학재단 이사회가 끝난 후 같은 자리에서 현재 경찰에 몸담고 있는 동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대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향후 총동문화가 추진하고 있는 외연확장의 실질적인 축이 될 직능별 동문화의 확산을 위해 경찰동문화 결성 추진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계급	직책	학과	학번
노규호	경무관	경찰수사원 원장	법학과	1988
이영찬	총경	안산 단원경찰서장	영어영문학과	1990
전재홍	진)경정	우리은행 사이버수사대	불어불문학과	1990
박준필	경정	경찰청 과학수사분석실	법학과	1995
안성일	경정	파주경찰서 형사과장	경영학과	1996
서광철	경정	인천경찰청 정보상황계장	경영학과	1996
최명식	경정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경영학과	1997
김희원	경정	101경비단 작전과장	법학과	2003



GOOD NEWS,



NEW GOOSE.

100% 리사이클 친환경 충전재 알레르망 뉴구스

ALLERMAN

주요약력

- 2022~2025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역임
- 2024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수상
- (현)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고양시 상공회의소 부회장
- 저서: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80학번
(주)알레르망 회장 김중운



국회의원 김남국(행정학과'01학번) 동문

국민의 오늘과 국가의 미래, 그 사이를 잇다

법조인에서 교육자로, 정치인으로 이어진 행보에는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일'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에서 삶의 방향을 고민하던 청년은 변호사가 되어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고, 모교 강단에서는 후배들의 성장을 함께했으며, 이후 정치에 뛰어들어 법과 제도를 통한 변화를 모색해 왔다.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입법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그는 최근 국회에 재입성해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다시 출발선에 선 김남국 동문에게 그간 걸여온 길과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사회에 관해 물었다.

삶의 중앙에서

삶의 '중앙'에 있는 동문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로소 삶의 중앙에서 느끼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Q 중앙대학교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여느 대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다. 학업도 놓치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다 보니 늘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요. 무엇보다 한번 시작하면 열심히 해보려는 성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로 고민도 많았습니다. 특히 군 복무 이후에는 '무엇이 될 것인가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많이 생각했죠. 교사의 길도 생각했고, 공무원과 변호사도 고민했습니다. 직업은 달라도 공통점은 하나였는데요. 제가 가진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그 생각이 이후 제 삶의 여러 선택을 관통해 온 듯합니다.

Q 전남대학교 로스를 졸업 후 법무법인 예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선택한 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다. 하나는 사회에 공적으로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직이나 틀에 얽매 이기보다 제 판단과 책임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법은 때로 차갑고 어려운 언어이지만, 제대로 작동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장치 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억울하게 위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형사사건입니다.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며 이전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법리적 쟁점을 찾아냈고, 결국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결과를 얻었죠. 판결문 몇 장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며, 법률가가 다루는 사건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이후 모교 공공인재학부 강사로서 언어논리 영역을 강의하기도 하셨습니다.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쑥스럽지만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학부 시절 은 사남께서 농담처럼 "졸업하면 후배들 좀 가르쳐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가 된 뒤 실제로 인연이 이어져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게 됐죠. 처음에는 로스쿨이나 공직 진출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나눠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막상 강의를 시작하고 보니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이 더 많았는데요, 1학년 때 처음 만났던 학생이 어느덧 졸업해 변호사가 되고, 이제는 법조인으로 자기 몫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기쁨은 무엇보다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제' 관계라기보다 가까운 선후배처럼 인연

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특별하게 남은 이유는 누군가의 성장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만큼 보람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Q 2020년 출마 배경으로 '절박함'을 꼽으며 21대 총선에 출마하셨습다. 정계 입문 계기와, 당시 어떤 포부를 갖고 계셨나요.

변호사로 일하며 시민사회 활동과 여러 공익 사건에 참여하다 보니 비슷한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는 분들을 반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닐까'라고 고민하게 됐죠. 그러던 중 국회의원들과 여러 현안을 다루며 정치 참여를 권유받았고, 그것이 충선 출마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결국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가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지요.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절박함'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Q 지난 21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었나요.

가장 중시했던 원칙은 정치는 국민의 삶 속에서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GTX-C 상륙수역 정착처럼 매일 출퇴근하는 시민의 시간을 줄이는 일에서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처럼 환자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까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죠. 물론 정치에는 국가 방향을 정하는 큰 담론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국민에게는 오늘 아침 출근길이 얼마나 걸리는지, 부모님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지,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지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정치란 거대한 국가 비전과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지난해에는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근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대통령의 SNS 메시지와 디지털 소통, 주요 정책의 온라인 홍보 등을 담당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리

였죠. 국회에서는 주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관점에서 정부를 바라봤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이 결정된 뒤 수많은 부처와 기관을 거쳐 실제 행정으로 집행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은 국민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작동하고, 삶의 변화로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깨달았는데요. 입법과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는 점이 현재 의정활동에도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Q 6.3 재보궐선거에서 안산시 갑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소감과,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현안이 궁금합니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지는데요. 저를 다시 국회로 보내주신 뜻은 '과거를 잊었다'는 의미가 아닌, 다시 맡긴 만큼 제대로 일하며 결과를 만들어 내라는 무거운 주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GTX-C 상륙수역 분공사 착공과 신안산선 등 교통 현안을 속도감 있게 챙길 계획입니다. 동시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와 안산 사이언스밸리, 한양대 ERICA, 경기테크노파크를 혁신 생태계로 연결해 AI·첨단로봇·미래 제조산업을 안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결국 제가 만들고 싶은 안산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이고 가정을 꾸리며 오래 살아가고 싶은 도시입니다.

Q 선후배 중앙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동문의 힘이 단순히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인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취한 중앙인들이 그 경험을 다시 학교와 후배, 사회에 돌려준다면 모교의 힘도 함께 커질 겁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중앙인으로서 제가 받은 것을 후배와 사회에 돌려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또한 후배 중앙인에게는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길을 걷든 그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훗날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돌아켜보면 저 역시 처음 그랬던 길대로만 살아오지는 않았는데요. 선생님을 꿈꾸기도 했고, 행정을 공부한 뒤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으며, 모교에서 후배를 가르치다가 정치의 길에 들어섰죠. 그 과정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켜 보면 어느 하나 헛된 경험은 없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사람, 배웠던 것, 때로는 실패와 후회까지도 다음 선택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 줬죠.

Q 동문님께 '중앙대'는 어떤 의미였나요.

제게 중앙대학교는 인생의 변곡점이자, 방향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스무 살 청년에게 길을 보여준 곳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그때 좋은은 사람들을 만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혔고, 다양한 경험에 부딪히며 조금씩 제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었죠. 웃고 고민하고 도전했던 수많은 기억이 제 삶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중앙대는 단순한 모교를 넘어, '20대 청년 김남국'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 곳이자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공간입니다.

[대담 정리 : 박한희(신민방송'20)학생 기자]

최교진 교육부장관, 모교 BK21 교육연구단 방문… 청년연구자와 간담회 가져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모교 BK21 교육연구단 현장 방문을 위해 6월11일 서울캠퍼스를 찾았다. 최 장관 일행은 먼저 총장실에서 박세현 총장 및 주요 보직자들과 사전환담을 가진 후, 201관 3층 교육혁신 Vision Hall 에서는 4 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박사수료생,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인력, 신입교원 등 청년연구자 9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청년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최교진 장관이 이에 답하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이후 장관 일행은 209 관으로 이동해 기계공학과 BK21 교육연구단 (지능형 웨어러블 로봇 교육연구단)을 방문했다. 장승환 교육연구단장은 사업단 소개 및 대표 성과를 브리핑했고 이어진 연구실 방문에서는 지능형 웨어러블 로봇 관련 연구·실험장비 시연이 이루어졌다. 이어 방문한 301관에서는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BK21 교육연구단 (인공지능 –콘텐츠 미래산업 교육연구단)을 찾았다. 먼저 2층에서 영상학과 전시 작품에 대한 도슨트 투어가 진행됐으며, 박진완 교육연구단장의 사업단 소개와 탁훈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 소개가 뒤를 이었다. 이 자리에는 첨단영상대학원장도 동석해 교육연구단의 성과를 함께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약 2시간20분간 진행됐으며 BK21 교육연구단의 연구 역량과 청년연구자 양성 성과를 직접 살펴보는 자리가 됐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선정 5년간 91.2억 지원받아



모교가 개인정보 보호·활용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모교는 서울여자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6년 개인정보 보호·활용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기술·법·경영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기술·정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컨소시엄은 향후 최대 5년간 총 91억 2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인정보보호 석·박사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인재 배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모교는 데이터와 AI 융합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AI(AI Transformation) 시대에 개인정보 전 주기에 걸친 가치 창출과 보호를 책임 있게 이끌 혁신 전문가(Responsible Innovator)를 양성하고자 ‘AX-Privacy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서울여자대학교와 함께 국내외 관련 산업체와 협력하며, 즉각적인 현장 투입이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2026년) 국내 최초로 일반대학원 융합보안학과에 신설한 ‘개인정보보호 전공’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며, 컨소시엄을 맺은 서울여자대학교는 2027년에 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연구단은 AX 전환을 준비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 교수진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 실습을 지원하는 경험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경영·법제도를 아우르는 다학제적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적 시각과 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한다.

소프트웨어학부 손웅석 교수팀

세계 최고 학술대회 USENIX OSDI에 논문 게재, 국내 사립대학교 단일 소속기관으로는 첫 사례



토리지 성능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 중심 산업의 급성장으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성과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차세대 AI 스토리지 시스템의 핵심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학부는 이번 OSDI 논문 게재를 계기로 운영체제, 스토리지, 분산시스템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 영역의 연구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손웅석 교수팀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컴퓨팅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국내 운영체제 기술 자립과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설 전망이다.

서울 RISE 10 챌린지 선정



모교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26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ISE 10 챌린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서울 RISE 10 챌린지는 서울시가 미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대학의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 사업이다.모교는 ‘서울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AI 기반 탄소중립 도시 Net-Zero 플랫폼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과제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국가 탄소중립 전략, 서울시 탄소중립 로드맵을 연계해 도시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연구는 ▲수소 기반 수송·탄소처리·폐기물 자원순환 ▲배터리 전기수송 ▲건물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 ▲건물 히트펌프 ▲탄소시장 등 5개 분야의 교수 연구팀이 참여하는 융합 연구체제로 운영된다. 지능형에너지산업학과 이철진 교수가 수소 기반 수송·탄소처리·폐기물 자원순환 분야를 총괄하며, 지능형에너지산업학과 남인호 교수가 배터리의 전기수송,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김민성 교수가 건물 히트펌프, 건축학부 김영수 교수가 BIPV 및 그린빌딩, 경제학부 박성용 교수가 탄소배출권 비즈니스 분야, 창업지원단 최용석 교수가 기술사업화를 담당한다.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탄소 감축 기술과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분야 간 데이터를 통합하는 AI 기반 Net-Zero 플랫폼을 구축해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는 핵심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연구는 국내 연구진 간 융합을 넘어 글로벌 연구협력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와 중국 칭화대학교(Tsinghua University)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탄소중립 기술과 도시 에너지 시스템, 정책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제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연구책임자인 이철진 창업지원단장은 “수소 기반 수송과 탄소처리, 배터리 전기수송, 건물에너지, 탄소시장 등 5개 분야 연구진이 긴밀하게 협력해 AI 기반 Net-Zero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울시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중심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교수 연구팀

단열·열저장·난연 성능 통합한 바이오기반 다기능 열관리 복합소재 개발

김주현 교수 연구팀이 전자자동차와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열관리 복합소재를 개발했다. 화학공학과 겸 지능형에너지산업융합학과 김주현 교수 연구팀은 열전달을 억제하는 바이오 기반의 에어로겔과 열을 흡수·저장하는 상변화 소재를 결합해 단열, 열에너지 저장, 누출 저항성, 구조적 안정성, 난연 성능을 동시에 갖춘 열관리 복합소재”를 개발했다. 전자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방전이나 내부 단락으로 과도한 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열이 인접한 셀로 빠르게 전달되면 연쇄적인 온도 상승과 화재를 동반하는 열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고분자 폼, 세라믹 섬유, 에어로겔 등의 단열재가 활용되어 왔지만 기존 소재는 열전달을 늦출 뿐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직접 흡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상변화 소재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잠열을 흡수해 온도 상승을 완화할 수 있으나, 액상화에 따른 누출과 구조 손상 문제가 뒤따랐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에어로겔의 단열 기능과 상변화 소재의 잠열 저장 기능을 하나의 복합소재에 결합했고 발생한 열을 흡수함으로써 열의 전파를 늦추는 동시에 한층까지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바이오 기반 에어로겔과 상변화 소재 결합... 배터리 열폭주 전이 열관리 소재

연구 배경 및 한계: 기존 단열재(폼, 섬유, 세라믹)는 열전달을 늦출 뿐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직접 흡수하지 못함. 상변화 소재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잠열을 흡수해 온도 상승을 완화할 수 있으나, 액상화에 따른 누출과 구조 손상 문제가 뒤따랐다.

개발된 다기능 열관리 소재 (HEC/LGN 에어로겔-에폭시/에리트릴 복합소재):

- 단열 기능: HEC/LGN 에어로겔을 사용하여 열전달을 억제.
- 상변화 소재 (에리트릴): 열을 흡수하여 온도를 낮춤.
- 구조적 안정성: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
- 난연 성능: 에리트릴이 난연성을 부여.
- 열에너지 저장: 에리트릴이 열을 저장하여 온도 상승을 완화.

기대 효과 및 활용: ZrO₂ (산화아연) 도핑을 통한 열전도도 향상, 열에너지 저장 및 방출, 화재 안전성 향상 및 화재 예방.

연구 결과는 '다기능성 열 절연을 위한 산화아연 도핑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스/리그닌 에어로겔-에폭시/에리트릴 복합소재(Zinc oxide-integrated hydroxyethyl cellulose/lignin aerogel-epoxy/erythritol composite for multifunctional thermal insulation)'라는 제목으로 화학공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mpact Factor 12.5) 게재되었다.

K-POP 거장 김형석 작곡가 글로벌예술학부 특임교수 위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POP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김형석 작곡가가 예술대학 글로벌예술학부



특임교수로 위촉됐다. 신임 김형석 특임교수는 지난 1989년 데뷔 이래 김광석, 박진영, 윤종신, 임재범 등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거장이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장 많은 창작 음원을 등록한 작곡가이기도 하다. 대외적으로도 독보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김 교수는 지난 2024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방문교수로 초빙되어 세계적인 석학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한 바 있다. 김형석 특임교수는 “전통 있는 문화예술의 요람인 중앙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그동안 대중문화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편장완(영어85) 총장

모교 방문, 양 기관 교류 협력 기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편장완 총장이 7월14일 모교를 방문해 향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세현 총장은 모교를 방문한 편장완 총장(영어학과 85)을 환영하며, 우리 대학 동문으로서 문화예술계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높여온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박세현 총장, 조영금 교학부총장, 이무열 대외협력본부장, 이길우 예술대학원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편장완 총장, 주성태 교무처장, 이강민 기획처장, 이용희 대외협력과장이 함께했다. 1993년 개교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음악원·연극원·영상원·무용원·미술원·전통예술원 등 6개원을 운영하는 국립 예술교육기관이다. 현재 석관캠퍼스·서초캠퍼스·대학로캠퍼스 등 3개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2026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별 순위 공연예술 부문에서 공동 21위를 기록했다. 편장완 총장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예술 교양학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인문·사회학적 기초를 기르고, 타 장르를 아우르는 통섭적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 간 실질적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향후 모교와의 교류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중앙대병원, 중증·응급의료 안전망 기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중앙대병원(원장 이재성)은 8월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2024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위기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당시 중앙대병원은 비상진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응급환자와 전원환자 수용을 이어갔으며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와 최종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기관 역할도 수행했다.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수용과 119 이송·병원 간 전원환자 수용, 최종치료 제공 등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국가 지정 감염병 치료병상 운영, 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 등 필수의료 분야 역할도 이어가고 있다. 이재성 원장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교직원들의 노력이 이번 표창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학대학동문회를 찾아서



오랫동안 약학대학이 사용한 파이퍼홀은 1955년 미국 제약회사 벡스트의 워너 램버트 이사장이 파이퍼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약학대학 사설에 사용하도록 10만 달러를 기부해, 1956년 철근 콘크리트 4층 건물로 연면적 1만 2,380평방미터로 건축되었다.

Q 중앙대 약대생만 이해하는 추억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파이퍼홀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중앙대를 다닌 분 들이라면 한 번쯤은 지나쳤을 파이퍼홀, 약대생에게는 학창 시절이 담긴 공간이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 물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며 수업을 다녔는데 요, 시험 기간엔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모습 이 기억납니다. 당시에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컸는데 시 간이 흐른 지금은 중앙대 약대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Q 학창 시절 '중앙대 약대 출신이라 든든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사회에서 선배님을 만날 때마다 '중앙대 약대 출신이라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공감대만으로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소중한 조언을 나눠주셨죠.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마 음이 중앙대 약대를 끈끈하게 이어나가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약학대학 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많은 동문 선배님들께서 큰 보탬이 되어주셨고요, 저희 동문회도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이어받아, 후배들에 게 다시 든든한 선배가 되어주는 동문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Q 중앙대 약대는 실험반이 따로 운영될 정도로 '반 문화'가 유명합니다. 약대생에게 반 문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실험반은 단순히 실험을 함께하는 팀이 아니라 실험부 터 과제까지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함께하며 서로의 성 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 면 어느샌가 죽마고우가 되어있죠. 여기에 각 반마다 지도교수님이 계셔서 학업은 물론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었는데요, 실험반은 교수님과 학생, 선후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네트워 크의 발판이었죠. 그래서 학번이 달라도 "무슨 반이었 어요?"라는 말 한마디면 금세 거리가 가까워져 있어 요, 결국 실험반은 중앙대 약대생들에게 '함께 배우는 곳'을 넘어, 평생 이어갈 사람을 만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매년 골프대회와 체육대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함께할 때마다 특별히 느 끼는 점이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육대회에는 약 250명, 골프대회 에는 약 100명의 동문이 함께할 정도로 많은 분이 참 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체육대회에는 53학번 선 배님부터 19학번 졸업생까지 66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학번도, 세대도 다르 지만 '중앙대 약대'라는 이름 하나로 자연스럽게 하나 가 되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중앙 약 대의 힘은 사람에게 있구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이런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선 후배가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동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선배 님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동문회가 되는 것 이 저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Q 중앙대 약대 동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중앙대 약대 졸업생들은 약국과 병원은 물론 제약산 업, 연구, 공직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 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서로 나누고 선후배가 서로의 길을 이끌어주는 문화가 자연 스럽게 만들어져 있죠. 이런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한 사람들이 다시 후배들 의 길을 열어주면서 중앙대 약대만의 리더십이 이어지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혼자 만들어지는 존재 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경험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 니까요, 결국 한 사람의 역량을 넘어 사람을 키우고 연 결하는 문화 자체가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약학대학은 1953년 설립 이후 67회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중인데요, 선배님께서는 앞으로 60년이 더 지나도 이어졌으면 하는 문 화나 전통이 있나요?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전통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입니다. 약학 분야는 신약 개발, 바이 오 기술, 정밀의료 등 빠르게 변화되고 확장되고 있죠. 중앙대 약대가 오랜 시간 경쟁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도 전해 온 동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저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앙대 약대가 이어가야 할 전통이라고 생 각합니다. 후배들도 각자의 시대에서 새로운 길을 만 들어가며 이 전통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Q 약학대학 동문회가 동문만을 위한 약을 개발한다 면, 어떤 성분을 담고 싶으신가요?

중앙대학교 동문들을 위한 약을 만든다면 '끓임없이 배우는 자세'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 를 담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끓임없 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는 어느 분야에서나 꼭 필요 한 힘이니가요. 하지만 성장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 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먼저 걸어난 사람이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또 다른 누군가가 이어가는 과정 속 에서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지죠.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중앙대학교'라 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미래를 만 들어가는 문화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취재 정라:고유정(융합공학'22)학생기자)



약학대학동문회가 추천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



권석형(약학'75/노바렉스 회장)동문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개척자

권석형 동문은 '정직과 신뢰'의 신념으로 국내 1위 건강기능식품 ODM·OEM 기업 노바렉스를 일궈냈 고 끊임없는 R&D 투자와 혁신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 동문사회의 평이 다. 권 동문은 1979년 모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약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형적인 '중앙대 약학인'이다. 1983년 종근당제약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 삼아약품공업, 동방제약을 거쳐 한 국파마 상무이사를 역임하며 제약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1997년 렉스진바이오텍 대표이사를 거쳐 2008년 노바렉스(당시 헬스사이언스)를 설립하고, 당시 불 모지였던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투신하여, 현재 노바렉스를 연 매출 4,0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국내 최다인 50건의 개별인정형 원료를 보유한 R&D 중심 기업으로 키워내며 업계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립했다. 권동문은 건강기능식품의 과학화와 글로벌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 2019년 :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훈 2000년 : 벤처기업육성 부문 국무총리표창 2002년 : 한국벤처기업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2022년 : 세계적 권위지 TIME지에 한국 혁신기업 사례로 소개 2024~2025년 : 제61회 무역의 날 '5천만불 수출의 탑', 제62회 무역의 날 '7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또한 권동문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12대, 13대 회장을 역임하며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규제 혁신을 이끄는 등 산업의 기 틀을 마련하는 데 헌신했다. 권석형 동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을 중요시한다. 특히 지난 2018년 노바렉스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당시 가치로 약 180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회사에 증여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부실기업의 우회상장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얻기 위한 행보로, 업계에 큰 귀감이 되었다. 권동문은 인터뷰를 통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나를 오늘에 있게 한 곳이며, 전문 지식을 길러주고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한 정 신적 지주"라고 회고했다. 후배들에게도 "약학적 지식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므로, 약국이나 병원에만 국한되지 말 고 넓은 세상을 보라는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정상수(약학'76/파마리서치 이사회 의장)동문 재생의학의 개척자

정상수 동문은 모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82년 대웅제약에 입사하여 약 11년간 개발팀장 및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로 재직하며 제약 산업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1993년 파마리서치를 창업하여 30년 넘게 기업을 이끌어 왔다. 특히 고향인 강릉의 언어에서 추 출한 PDRN 및 PN 성분을 이용한 재생의학 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파마리서 치를 재생의학 분야의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도약시켰다. 2015년 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켰으며, 2020년부터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글로벌 확장 및 미래 전략 수립에 전념 하고 있다.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정상수 동문은 후배 양성과 학교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여해 왔다. 2023년에는 중앙대학교 동문 발전기금 5억 원을 쾌척했고, 사회적 책임 실천하기 위해 고향 강릉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지역 인 재를 채용하고, 지역 청년 스타트업 지원 및 문화재단을 통한 예술 활동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상수 동문은 이러한 산업 발전과 자원 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7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자원 보전 유공으로 산업포장을 수훈했고 2022년에는 강원 지역 산업 육성 및 발전 유공으로 강원도지사상을 받았다. 정상수 동문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Better Company'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중앙대학교 동문들에게 귀감이 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임세진(약학'84)동문 동덕여대 제11대 총장 취임

동덕여자대학교 신임 총장 임세진 동문은 모교 약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명문인 위스 콘신 주립대학교 매디슨캠퍼스(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약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저 명한 학자다. 1995년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기획처장, 교수처장 등 대학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 다. 연구 실적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연구·행정 전반을 두루 섭렵한 '행정·교육 전문가'이자 '기획통' 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 동문은 총장 선임에 앞서 열린 총장후보자 소견발표회에서 대학 생존과 성장을 위한 과감한 혁신안을 공개하며 이사회의 큰 주 목을 받았다. 그는 대학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하고, 급변하는 기술 수요에 발맞춘 미래형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 해 AI·공학 중심의 교육 구조 개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여대 교육 틀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기술, 사회 수요에 발맞춰 대학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대학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QS 세계대학평가 순위 상승,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채널 다변화 등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다. 임세진 동문은 "동국의 자랑스러운 전통 위에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며 "대학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미래 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 행정과 교육 혁신을 두루 이끌어온 임 신임 총장의 취임으로 동덕여대는 AI, 공학 중심의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글로벌 경 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진정주 동문(약학'90/진정주약국 대표) 모교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건강 전도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와 소통하고 있는 진정주 동문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소평물인 (주)진정주물을 통 해 고품질 영양제를 보급하고 있 고 또한 약 40만 명의 구독자를 보 유한 유튜브 채널 '진약사톡'을 운 영하며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 등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기부는 내 오랜 꿈이었다"는 진정주 동문은 모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모교에 기탁한 총 누적 기부금이 약 31억 원에 달한다. 최근에도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약학대학 및 R&D 센터 건립기금 3억 원, 학생 장학기금 1억 100만 원)으로 총 4억 100만 원을 쾌척했다. 지역사회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5,000만 원, 소 외계층 지원을 위한 5,000만 원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 이러한 진동문의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사회 적 기여를 인정받아 2022년에 모교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 았다. 2020년,2023년 경기도지사 표창,2023년 자랑스러운 중앙 인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파도 관촬아』, 『내 몸이 웃는다』, 『기 적을 부르는 암송 1200』 등이 있다.

박종혁(약학'91)동문 제약 특허의 독보적 권위자



중앙과 함께 성장한 전문 변리사, 박종혁 동문은 모교 약학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 한 진정한 '중앙 가족'이다. 학부 시 절 우연히 신문을 통해 기술과 법 을 결합한 변리사라는 직업에 매력 을 느낀 박동문은 3년의 준비 끝에 1998년 제35회 변리사 시험에 합

격하며 전문가의 길로 들어섰다. 박 동문은 현재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박종혁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서 제약 산업 특허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 을 점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국내 제약업계의 특허 전략 고도화 에 기여해 왔다. 박 동문은 대외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대법원 전문심리위 원, 와이에스장합동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를 역임하고, 현 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특허청 특허기술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박 동문은 제약 분야 특허 분쟁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자디양 등 100개가 넘는 제네릭 약품의 특허 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 며, 지금까지 대리한 특허 심판 및 소송 건수는 1,000여 건에 달 해 국내 변리사 중 최다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제약 특허 분야의 필독서로 꼽히는 《허가특허연계제도 강 해》를 저술하여 후학 양성과 업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 박종혁 동문은 대학 시절 교수님들과 선후배들로부터 받은 도움 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약 학대학 70주년을 기념하여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고 모교 는 박 동문의 뜻을 기려 약학대학 내에 '박종혁 팀플룸'을 조성 하였다. 이곳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토론하며 꿈을 키 울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환경의 장이 되고 있다. 5박 동문은 "약사 출신 변리사는 전문 지식 외에도 특허 제도가 국내 제약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소명 의식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며, 후배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균형을 잡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있다.



장성경 단장

어린이 합창 & 공연 지도 전문가
(성악 93)

“아이들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늘해랑과 함께 만드는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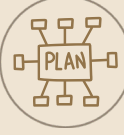
기업·기관 초청공연
기념식·브랜드 행사·사회공헌
행사에 맞춘 어린이 합창 및
공연



정부·지자체 공식행사
국가기념식·정책행사·지역
축제 등 공공행사 초청공연



기업후원사업
기업 후원 및 ESG, 사회공헌
과 연계한 아동 청소년 예술
프로그램 진행



전체 행사 기획·제작
행사의 목적과 메시지에 맞춘
레퍼토리·연출·무대 구성



정기/기획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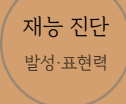
기업/기관 초청 공연

방송 문화예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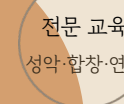
대극장 오페라 공연

해외교류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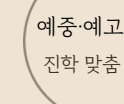
늘해랑 예술 교육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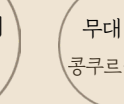
재능 진단
발성·표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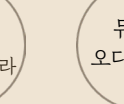
전문 교육
성악·합창·연기



예중·예고 입시
진학 맞춤 지도



무대 경험
콩쿠르·오페라



뮤지컬
오디션 준비

공연 섭외 · 기업후원 · 기관협업 문의  장성경 단장 010-5317-2440

우리의 친절이 환자에게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중앙대학교의료원 중앙제일병원
병원장 : 임정일 (의학'87)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24
대표전화 043-533-1711

평 일 09:00~17:30
토요일 09:00~12:30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24시간 운영

제 361 호 • 2026. 08. 25.

카자흐스탄 의료봉사 동행기

13

뜨거운 여름, 봉사로 만난 사람들.

봉사가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봉사 현장을 다녔고, 7~8년 전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해 왔다. 합창 무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며, 음악을 통해 미래 세대를 만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찾아 함께하는 일은 어느새 자연스러워졌다. 그렇게 봉사는 삶의 한 부분처럼 자리 잡았다.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이 올해로 9번째 카자흐스탄 해외의료봉사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봉사라는 말 자체가 낯설지는 않았기에 실패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출국일이 가까워질수록 마음 한편에는 긴장감이 생겼다. 의료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의료진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보낼 수 있을까? 봉사에는 익숙했지만, 의료봉사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조금 주춤하는 나였다.

그렇게 시작된 한여름의 카자흐스탄. 막상 그곳에서 지내보니 그동안 해왔던 봉사와는 조금 달랐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마주한 작은 장면들이 오래 마음에 남았기 때문이다.

한 정신과 전문가가 TV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만나기 힘든 큰 행복을 기다리기보다, 일상의 작은 행복을 기록하라’는 이야기였다. 돌아보면 이번 여름도 기차한 무엇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 같다. 뜨거웠던 날씨와 낯선 곳의 냄새, 피부에 닿던 습도, 사람들과 나눈 따뜻한 눈빛과 미소. 아마 나는 ‘올여름 카자흐스탄에 다녀왔다’라는 사실보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마주했던 평범하고도 따뜻한 순간들을 더 오래 기억할 것 같다.

출국하던 날 아침, 봉사단이 모이기로 한 시간보다 한 시간쯤 일찍 도착했다. 조금 여유롭게 출국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캐리어와 의료 물품을 마주한 순간, 그 생각은 급세 달라졌다.

서로 어색할 법한 순간에도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짐을 한쪽에 내려놓고 의료 물품을 챙기던 모습이었다. 누가 무엇을 맡을지보다 지금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보태던 모습이 현대병원 의료봉사단의 첫인상이었다.

카자흐스탄의 한여름은 뜨거웠다. 햇볕 아래에서는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다. 그럼에도 봉사단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의료진은 진료를 준비했고, 통역은 환자와 의료진 사이를 오갔다. 점수팀도, 식당도, 내가 속한 볼소팀(치과진료)을 돕는 업무를 하는 팀이라 볼소라고 이름붙였다.)도 저마다 필요한 일을 찾아 움직였다.

환자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현대병원의 봉사 지역은 카자흐스탄의 딸피고르간. 수도 알마티나 아스타나와 같은 대도시에 비해 의료환경이 취약한 지역이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더 먼 곳에 사는 환자들도 한국에서 온 의료진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택시로 2시간 이상을 달려온 것이다.

두 개의 지방에 몸을 의지한 할머니 한 분도 그렇게 오신 분이다. 긴 이동이 버거웠는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몸이 휘청했고, 곁에 있던 봉사자와 급히 달려가 부축했다.

3시간. 누군가에게는 하루 중 지나가는 몇 시간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꼭 필요한 진료를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거리였다.

세 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계속 울었다. 칫솔과 칫솔 컵을 건네고, 달콤한 초코파이와 사탕을 쥐여줘도 좀처럼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통역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제야 아이의 울음이 다르게 들렸다. 이 작은 아이의 울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 대신 울음으로 마음을 전해야 하는 답답함을 잠시 헤아려보게 됐다.

하루의 일이 끝날 오후 시간쯤, 단체 채팅방에 ‘피자 천사’가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올라왔다. 덕분에 숙소 근처 피자집에 봉사자들이 모였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피자 한 조각을 나누며 각자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돌본 사람들이 그날 밤에는 서로의 하루를 돌보고 있었다. 봉사는 어쩌면 이런 모습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주고, 지친 사람에게 잠시 쉬어갈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번 봉사에서 단연코 인상 깊은 인물을 꼽자면, 김부설 병원장이다. 봉사단의 리더인 동시에 의사로서 현장을 지키는 모습은 내게 큰 울림이 되었다. 살인적인

수술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감 있게 살폈다. 몸이 지칠 때면 링거를 맞으면서까지 환자를 살폈고, 병원에 하나둘 불이 꺼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다.

김부설 병원장의 수술을 통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던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에게 의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의료봉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먼 곳까지 찾아와야 하는지 몸으로 배운 순간이었다.

이번 봉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꼽으라면,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고려인의 역사다.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이곳까지 내몰렸던 고려인들. 척박한 땅에서 삶을 일구며 살아남아야 했던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김부설 병원장이 우슈토크 언덕에 추모 공원을 세웠다. 그곳의 추모비에는 낯선 땅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던 고려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장면이 오래 남았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고려인들이 서툰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라서였을까. 그들이 부르는 아리랑은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았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의 노래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연주로 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8박 9일의 여정이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만큼 의견이 엇갈리는 순간도 있었고, 조율이 필요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호흡이 맞기 시작했고, 우리는 결국 한 팀이 되어갔다. 우리는 모두 한 방향,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이번 여름, 봉사를 통해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 먼 길을 온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수고했다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 의료인은 아니지만 아픈 다리를 한 번 더 살피주는 것,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여주는 것. 그렇게 작은 배려와 성의가 모이면 한 사람의 하루를 조금 덜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 봉사를 한 문장으로 남긴다면,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의료봉사는 병이다.”
병을 털어주려 갔다가, 내가 오히려 병을 얻어왔다. 한 번 다녀오면 또 가고 싶어지는 병. 낯지 않아도 괜찮은 병. 누군가를 돕는 순간 오히려 내가 치유되고, 시간이 지나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잊지 못해 가슴이 저릿해지는 병.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카자흐스탄의 뜨거웠던 여름을 떠올리면 자꾸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도 해진다. 그 더위 속에서 일 년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고국을 그리워하는 고려인분들, 봉사자들이 서로에게 건넸던 마음들이 참 따뜻했고, 참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벌써 그립다.

- 자료 협조: 김한울(현대병원 홍보팀장)

글 : 김경은
(관현악'95 / 사무처 과장)

법률을 넘어,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다 변화와 도약을 이어가는 법무법인 YK

법무법인 YK(강경훈 대표변호사, 김범한 대표변호사)의 변화가 눈에 띈다.

과거 형사·송무 분야에 강점을 가진 로펌이었다면, 최근에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의 차관급 인사와 학계·공공기관 출신 전문가들을 잇달아 영입하며 기업의 경영·정책·규제·산업환경까지 아우르는 종합 법률·전략 서비스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법관 출신 권순일 대표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배성범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 김성섭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 장상윤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이 합류하며 정책·산업·규제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중앙대학교 동문으로는 금융투자·자금운용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권계주 고문(응용통계학과 74학번)과 부장판사 출신 정병실 변호사(법학과 90학번)가 합류해 기업자문과 금융, M&A 등 기업법무 분야의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기업솔루션 그룹이 있다. 회사법과 M&A 등 전통적인 기업법무에 정부·공공정책, 산업·규제, 에너지·환경, 지식재산, 부동산·건설, 벤처·스타트업 등의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경찰 출신 전문가 등을 영입해 준법경영과 컴플라이언스, 수사 대응, 기업범죄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대응 범위를 넓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UAE 두바이·아부다비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해외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현지 사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결국 YK의 변화는 ‘법률을 제공하는 로펌’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법률가뿐 아니라 정책·행정·산업·금융·수사 분야 전문가를 결집해 기업의 현재 리스크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의 기회까지 함께 설계하는 종합 법률·전략 파트너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주요 구성원



강경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김범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 사법연수원 40기



권순일 대표변호사

- 前 대법관
- 前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배성범 대표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23기



정병실 파트너변호사

- 중앙대학교 동문
- 前 대법원 재판연구원
- 前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권계주 고문

- 중앙대학교 동문
- 前 에너지공기업 (한전 외 5개 발전사)
- 전략 고문
- 한국 ESG 1급 자격증 보유

각급 동문회

[의과대학 동문회]
친선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의과대학 동문회(회장 정준교/의학'82/정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는 5월31일(일) 진양밸리cc에서 '2026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집계한 경기에서는 준우승에 남자 최준원(70타), 여자 박아라미(70.6타)가 선정됐고, 우승은 남자 홍연표(69.2타), 여자 강성희(70.6타)가 차지하며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다. 최대 참가 선수상은 11회 동문 10명과 부부 참가 3명 등 총 13명이 상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다비디상은 4개의 버디를 기록한 이철희 의무부총장 및 제13대 의료원장이 차지했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니어링리스트 남자 부문에 이관수(0.1m), 여자 부문에 정재우(0.4m)가 수상했으며, 톱기스트는 남자 남상일(250m), 여자 이효정(170m)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한 초청 프로 4명을 제외한 전체 일반 집계에서는 한덕현 동문이 75타를 기록하며 메달리스트의 영예를 안아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대학원동문회]
하반기 모임 열어



대학원동문회(회장 손의동/약학'74/모교 명예교수) 하반기 모임이 7월8일 오후5시30분 서울캠퍼스 인근 안동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대학원동문회 창립50주년 기념행사와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올해 상반기 학위수여식 및 장학금 수여식 등 업무 보고에 이어 하반기 장학금 수여계획,기금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전세종충남 동문회]
정기모임으로 산행

대전세종충남 동문회(회장 유재봉/건축79/다우건설 부회장)는 5월 17일(일) 대전 대덕구 계족산 장동산림욕장에서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12명의 회원이 참석해 황톳길을 따라 계족산성까지 이어지는 산행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산행 이후에는 강병호 청룡회 회장(경영'81/배재대 대학원장)과 함께 충남 금산에 위치한 승당 임영신 박사 생가를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총동문회 이대영 상근부회장, 이병주 문화위원장, 김창한 사무총장이 함께 자리해 향후 총동문회 이터널리거 행사 시 거점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김해·양산동문회]
온(ON)병원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김해·양산동문회(회장 전세영/정치외교'74/부산교육대 명예교수)는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 온병원과 동문들의 진료기관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동문회는 6월16일 오전11시 부산진구 당감동 온병원 9층 회의실에서 정근 온병원그룹 이사장,김동현 병원장,임종수 행정원장, 정복선,황수연 간호이사 등 관계자들과 부산동문회 전세영 회장,김병찬 수석부회장,장성환 부회장, 한장원,김태완 자문위원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산동문회 동문과 가족들은 온병원을 이용할 경우통원입원 등 진료비와 종합건강검진은 물론 장례식장 이용 등에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약학대학 부산동문회]
정기총회 열려



약학대학 부산동문회(회장 배성진/약학'72/동해약국 대표) 정기총회가 6월13일 오후6시 부산진구 솔내에 한정식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7년부터 회장직을 수행해 온 배 동문의 뒤를 이어, 지난 15년간 총무를 맡아 온 황명석(약학'77/성심약국 대표) 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신임 감사로 옥태석(약학'71)송열호(약학'72) 동문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동문회 전세영 회장과 고군상 고문도 참석해 축하했다.

[언론동문회]
'2026 정기총회' 성료



언론동문회(회장 이종훈/불문'86/동아일보)가 7월 1일 서울캠퍼스 R&D센터 University Club에서 전,현직 언론계 동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중앙 언론동문회 정기총회 및 제14회 중앙 의혈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14회 중앙 의혈언론인상 시상식에서는 백준무(신문방송'05/세계일보 탐사보도2팀장) 동문과 임재혁(공공인재'17/동아일보 기자) 동문이 의혈언론인상을 수상했다. 특별상은 국회의원 백선화(사회복지'87) 동문에게 수여됐으며, 지난 2년간 언론동문회를 위해 헌신해 온 이종훈 언론동문회장(불어불문'86)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중앙대 언론동문회 정기총회
1월 시 | 2026년 7월 1일(수) | 장소 | 102관 11층 University Club



이번 행사에는 언론인을 꿈꾸는 재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으로도 마련됐다. 모교 영자신문사 '중앙헤럴드'와 언론고시 준비 모임 '언필제' 학생들은 선배 언론인들과 소통하며 언론인의 사명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앙 언론인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언론동문회는 이날 모교 언론고시반인 '언필제'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미래의 언론인들을 응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노효동(영어영문'88/연합뉴스TV 보도국장) 동문을 선출했다.

기부

김동한(전기공학'68)동문
AI 미래기술 연구 발전기금 전달



(재)좋은친구 김동한 이사장 발전기금 &중서 전달식'이 6월 28일 서울캠퍼스 본관3층 세미나실에서 열려 전자전기공학 및 소프트웨어 분야 교수진과 학생 연구팀에 연구지원 증서를 수여했다. 발전기금을 전달한 김동한 동문은 현대양행과 글로벌 산업기술 기업 ABB(Asea Brown Boveri)에서 북동아시아 본부 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신재생에너지 기업 렌코(Renco)를 설립했으며, 현재는 공익재단인 '좋은친구'를 운영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동문은 후배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해 왔는데, 지난해 AI 산업 분야 연구를 위해 GPU 서버 구축 용도로 5,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 역시 미래기술 연구 발전을 위한 기금 7,000만 원을 쾌척했다. 특히 올해는 교수 연구자뿐 아니라 학생 공동연구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미래 연구 인재 양성에 대한 뜻을 밝혔다.

김우식(의학'90)동문
모교 의료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군산 서울안과의원 원장인 김우식 동문이 중앙대의료원 정기후원캠페인 'New Turn, My Turn'을 통해 발전기금 1천만 원을 후원했다. 김 동문은 "조경하는 지역 선배님께서 몇 년 전 모교 병원에 1억 원을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접한 뒤, 언젠가는 나도 모교 병원을 위한 기부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번 캠페인이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동문은 군산지역의 중앙대 의대 동문 모임의 총무를 맡아 동문 간 교류와 유대를 이어가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군산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실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수상

김성희(도서관학'82졸)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모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인 김성희 동문이 국가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동문은 2005년 기록관리학과 설립에 참여해 국내 기록관리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BK21 사업 참여를 통해 기록관리 연구·교육 인프라를 체계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김 동문은 10년 가까이 ISO/TC46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 기록관리 표준 논의에 참여했고, 이를 국내 학계와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관리 연구와 실무의 국제적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정책과 실무 현장에서도 기록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써왔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 전문위원으로서 국가 정책 수립에 참여했으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리 전문활동을 통해 기록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모교 학술정보부장 및 박물관장을 역임하는 동안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LAM)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김형주(철학'01)동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모교 인문대학 철학과 겸 인공지능인문학연구소 소속 교수인 김형주 동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최한 '제39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과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보문화 유공 표창은 국내 정보통신 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그동안 주로 IT 개발자나 과학계열 석학, 관련 정책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상을 순수 인문학 분야인 철학과 교수가 수상한 것은 학계 안팎에서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자 혁신적인 융합 연구의 패기로 평가받고 있다. 김형주 동문은 지난 2017년부터 중앙대 HK+인공지능인문학단 연구 사업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며 국내 학계에 '인공지능윤리규범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을 개척하고 정립해 왔다. 김동문의 치열한 연구 성과가 집필로 이어진 저서 '인공지능 윤리규범학(태학사)'은 우수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4년 세종도서에서 이어 2025년 디지털 소사이머티 우수도서로 연달아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공 역량인 칸트 철학과 최첨단 인공지능을 접목해 매년 국제 저서 'Kant and Artificial Intelligence'는 세계 최고 권위의 칸트 철학 전문 출판사인 독일 데 그루이터(De Gruyter)에서 전격 출간돼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인공지능 철학 학계에서도 뜨거운 찬사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재혁(음악학부'17)동문
'토루 타케미츠 작곡상' 수상

모교 음악학부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최재혁 동문이 7월 12일 일본 도쿄 오페라시티 콘서트홀에서 열린 '토루 타케미츠 작곡상'(Toru Takemitsu Composition Award) 최종 결선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 동문은 이번 결선 연주회에서 오케스트라 작품(Supernova)을 선보여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한국 작곡계에서도 의미가 큰데, 최 동문이 한국 작곡가로서는 처음으로 이 대회 1위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최재혁 동문은 모교 이재문 교수를 사사했으며, 부산국제합창제, 부산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연주회, 제주국제관악제 등에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왔다. 결선 무대에서는 지휘자 오이치 스기야마의 지휘와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세계초연되었다. 독일의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클라리네티스트인 요르크 비트만이 심사위원을 맡았다. 이번 공모에는 25개국에서 총 112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최재혁 작곡가를 포함한 네 명의 작곡가가 결선에 진출했다.

류한소(대학원'09)동문
'DBpia 학술상' 수상



모교 사회학과 교수인 류한소 동문이 6월 19일 열린 '2026 전기 사회학대회'에서 'DBpia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노동자의 정신건강과 건강불평등 문제를 보건의료사회학·노동사회학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성과에 따랐다. DBpia 학술상은 DBpia를 운영하는 누리미디어가 제정한 상으로, 박사 학위 취득 5년 이내 인문·사회계열 신진 연구자 중 학회의 추천을 받은 우수 연구자 10명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한국사회학회는 류한소 박사에 대해 노동자의 정신건강과 건강불평등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학술적 성과를 축적해왔다고 평가했다. 류한소 동문은 최근에는 '한국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담론의 부상과 변화: 의료화의 의미와 역설을 중심으로',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의 질환서사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노인의 '흔뺑'과 우울의 관계' 논문을 통해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다.

김나영(예술대학원 재학)동문
시 뮤지컬 애니
'아기장수 우투리: Re-Bloom'으로
뉴욕국제영화제 3관왕 쾌거



모교 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도은컴퍼니' 대표인 김나영 동문이 연출한 단편 뮤지컬 애니메이션 '아기장수 우투리: Re-Bloom(Baby Hero Urturi: Re-Bloom)'이 뉴욕국제영화제(New York International Film Awards, NYIFA)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영화제에서 수상 부문은 ▲최우수 AI 영화상(Best AI Film) ▲최우수 뮤지컬 영화상(Best Musical Film) ▲최우수 신인 감독상(Best 1st Time Director)이다. '아기장수 우투리: Re-Bloom'은 김나영 동문이 스토리보드와 가사를 직접 집필하고, AI 도구를 활용해 작화·애니메이팅·음악 제작까지 1인 체제로 완성한 작품이다. 한편, '아기장수 우투리: Re-Bloom'은 이번 수상에 앞서 'AI Film Awards Cannes 2026' 공식 선정작을 비롯해 제

2회 대한민국인공지능영화제(KACF), 청강국제시장르영상제(CKAIFF), 홍콩과학기술대(HKUST) AI Film Festival, 우크라이나 ICJ International Film Award, 모로코 AFRICA AI CREATIVITY WEEK & AWARDS 파이널리스트 등 아시아·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4대륙 주요 영화제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모교의 이름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인사

임세진(약학'80) 동문
동덕여대 제11대 총장 취임



학교법인 동덕학원은 7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자 5명 가운데 약학대학 교수인 임세진 동문을 제11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임 동문은 모교 약학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명문인 위스콘신주립대학교 매디슨캠퍼스(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약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저명한 학자다. 1995년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대학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임 동문은 선임에 앞서 열린 총장후보자 소견발표회에서 대학 생존과 성장을 위한 과감한 혁신안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대학 혁신의 핵심 두 축으로 ▲남녀공학 전환과 ▲AI·공학(工學) 중심의 교육 구조 개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여대 교육 틀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기술, 사회 수요에 발맞춰 대학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대학 행정과 교육 혁신을 두루 이끌어온 임 신임 총장의 취임으로 동덕여대는 AI, 공학 중심의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남영준(도서관학'80)동문
국립중앙도서관장 취임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에 모교 명예교수인 남영준 동문이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남 동문은 모교에서 문헌정보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3년부터 전주대와 모교 교수로 재직하며 30여 년간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온 문헌정보학 분야의 권위자다. 한국도서관협회장과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국가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도서관 현장과 정책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임철빈(국문'87) 동문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이사장 취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이사장에 임철빈 동문이 취임했다. 임 동문은 모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과 인천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립박물관단지 내 개별 박물관과 통합수장고 등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앞으로 국립박물관단지에는 2030년까지 국립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등 개별박물관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양기원(화학공학'89) 동문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취임



한화시스템을 이끌 새 신임 CEO에 양기원 동문이 발탁됐다. 지난해부터 한화임팩트를 이끌어 온 양 동문은 우주와 방산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한화시스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사업모델 전문가로 통하는 양 대표는 특히 우주, 방산 분야 글로벌 사업 확장의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양 동문은 모교 화학공학과 졸업 후 1994년 12월 그룹에 입사해 방산·에너지·화학 계열사를 두루 거쳤다. 한화케미칼에서 사업개발팀장을 거쳐 한화토탈에서 대산사업장 기술기획팀장을 지냈다. 이후 한화케미칼 사업개발실장을 맡은 뒤 한화솔루션에서 전략기획실장, 한화 글로벌 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한화임팩트 대표직을 수행해 왔다.

박성수(식물가공'90졸) 동문
제주산학융합원 원장 취임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제4대 원장에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박성수 동문이 취임했다. 박 동문은 모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식품생화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일본 규슈대학교 농예학과와 생물화학전공 박사과정을 마치고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 국립 규슈공업기술연구소와 미국 뉴욕주립대 생화학세 포생물학과 연구원을 거쳤으며,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와 부교수를 지내고 2012년부터는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는 제주대학교 식품산업지원센터장, 제주대학교 어린이급식관리지원 3센터장,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장 등을 맡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주산학융합원은 글로벌 ICT·BT 산업 교육과 연구의 거점을 표방하는 기관이다. 박 신임 원장은 식품·바이오 분야 연구와 산학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지역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이끌게 된다.

박범수(영문'92) 동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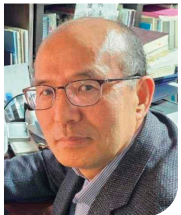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8대 사무처장에 전 경기아트센터 전략사업본부장을 역임한 박범수 동문이 선임됐다. 박 동문은 모교 중앙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경기아트센터 전략사업본부장과 문화강국네트워크 상임이사를 지냈으며,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과 차세대평가위원회 문화예술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예술위는 지난 6월17일 공개모집을 시작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처장 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했고 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2일 후보자 3명을 이범현 예술위원에게 추천해 박 신임 사무처장이 지명됐다.

동정

황우현(전기공학'79)동문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 분야
우수학술도서 선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특임교수인 황우현 동문의 저서 《전기화시대 최중병기 슈퍼디지털그리드》가 '2026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 분야에 선정됐다. 지난 2월



출간된 《전기화시대 최중병기 슈퍼디지털그리드》는 탄소중립과 급격한 전기화 시대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력망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 저서다. 황 동문은 지난 6월 제43회 한국과학기술도서상에서 이 책으로 최고 영예인 최우수 저술상을 수상한 데 이어, 7월 10일 대한전기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도 송화창 교수 등 5명과 공동 발표한 논문 '분산자원 4000만 개 Node의 전력망 수용방안과 Super Digital Grid 구축 전략'으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까지 이어지면서 최우수 저술상, 우수논문상, 우수학술도서 선정 등 서로 다른 평가를 통해 저술과 연구 성과의 가치를 연이어 인정받았다. 황 동문은 모교 중앙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전자동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신사업과 재생에너지 개발 업무를 수행했으며, 에너지신사업단장, 제주본부장, 인재개발원장을 거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과기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명예특임교수이자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산하 '햇빛·바람소속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부섭(의학'81)동문
몽골 의대생 24명 대상 한 달간
임상실습 진행

모두를 위한 장기투자
세대를 잇는 신뢰의 자산운용사
참여를 넘어 함께하는 성장
인공지능으로 신뢰의 가치를 이어갑니다.
가치를 지키는 운용의 원칙
단기보다 본질을 바라봅니다

라이프자산운용

LIFE ASSET MANAGEMENT
LONGTERM INVESTMENT FOR EVERYON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Two IFC 14F
Tel. 02-6105-6720 / E-mail. office@investlife.com

이재원 (경영학과'84/라이프 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 / 저서:이재원의 가치투자-가슴 뛰는 기업을 찾아서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병원장인 김부섭 동문이 몽골국립의과대학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몽 보건 의료 교류 확대에 나섰다. 김 동문은 지난 7월 1일부터 28일까지 몽골국립의과대학 의대생 24명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고, 28일 수료식을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몽골국립의과대학 의대생 24명과 인솔교수가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약 한 달 동안 현대병원에서 주요 진료과 강의와 임상실습에 참여하며 한국의 선진 의료시스템과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김 동문은 2012년부터 몽골 의료인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국 보건 의료 협력 강화에 힘써왔다. 현재까지 총 129명의 몽골 의료인이 현대병원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한국의 의료기술과 병원 운영 노하우를 몽골 의료현장에 전파하는 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김 동문은 지난 7월 9일과 10일 양일간,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순방 일정에 맞춰 현지에서 개최된 주요 보건 의료 행사에도 초청됐다.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9일 저녁 울란바토르 노보텔 호텔에서 ‘한·몽 프로젝트 연수생 간담회’가 열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한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 선진 의학을 접하고 돌아간 몽골 의료진 40명이 참석했다. 특히 현대병원에서 연수를 마친 6명의 현지 의사들은 “한국에서 체득한 임상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실제 몽골 환자 치료와 병원 경영 효율화에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대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통산 105명의 몽골 의료 인력을 전액 지원 방식으로 연수시키며 양국 의료계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를날인 10일 오전에는 정은경 장관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위 관계자들이 몽골 현대병원을 직접 방문해 시찰을 진행했다. 방문단은 현대병원이 추진 중인 ‘한국·몽골·카자흐스탄 해외병원 운영 사업’의 현황을 보고받고, 미래형 의료의 핵심인 ‘양국 간 화상 원격 협진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김부식 동문은 같은 날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교민간담회에도 내빈으로 참석해 외교 행보를 함께했다.

박용하(전기'84) 동문
(사)한국시니어협회 회장 취임



박용하 동문이 지난 2001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시니어협회의 제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시니어협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추어 시니어 계층의 건강 증진, 사회 참여 확대, 권리 보호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현재 건강한 노년 문화 조성과 세대 간 화합, 생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용하 동문은 모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이새국제물류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김진(서양화'94)동문
‘2027 다티스트’ 선정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 구조와 감각적인 색채 실험을 지속해 온 김진 동문이 대구미술관의 대표 연례 작가 지원 사업인 ‘2027 다티스트(DArtist)’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추천 및 선정위원회의 심층 심사를 거쳐 김진 동문을 ‘2027 다티스트’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시작된 ‘다티스트’는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예술적 탐구를 이어가는 작가를 발굴·조명하는 대구미술관의 핵심 연례 사업이다. 매년 1명의 작가를 선정해 약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개인전, 연계 학술 프로그램, 아카이브 제작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해 온 김진 동문은 모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예술대학교 첼시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에서 석사 학위(MAFA)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중앙미술대전, 동아미술대전 등 주요 공모전을 석권했다. 또한 독일 뉘른베르크 아테테인G, 중국 베이징 아트사이드 레지던시 등에 참여하며 국경을 넘어 예술적 지평을 넓혀왔다. 그의 주요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대구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자하미술관 등에 소장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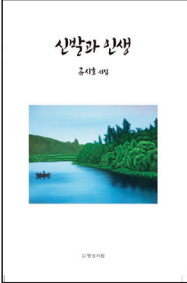
출판

김일두(법학'60)동문
시집 ‘모닥불 연가’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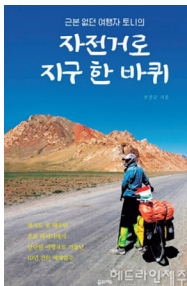
시인 김일두 동문이 여섯 번째 시집 〈모닥불 연가〉를 펴냈다. 포근하고 아늑한 새집 한 채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새 내린 82 편의 시를 4 부로 나누어 실었다. 시인은 자연 속에서 다면 묘사를 동원하는 충만한 표현과 운치로 사계절을 관조하며 인간 중심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다양성으로 대자연 생명들과 교감하여 그 속에서 가족애를 결합한 깊은 사랑의 시편들을 건져냈다. 김 동문은 한국작가회 등단하여 한국작가동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중앙대문인회 명예회장,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국제펜한국본부 이사, 계간문예작가회 고문을 맡고 있다.

류시호(기계공학'69)동문
첫 단독 시집 ‘신발과 인생’ 발간



류시호 동문이 7번째 단행본이자 첫 단독 시집인 ‘신발과 인생’을 발간했다. 총 105수의 시가 수록된 이번 시집은 6개 장으로 구성됐다. 자연의 품을 노래한 1장부터 술과 음식·차를 주제로 한 6장까지 다채로운 시상(詩想)이 담겼다. 류 동문은 특히 교직 시절 해위를 오가며 쓴 여행 산문시 30여편이 이번 단독 시집을 엮어내는 주요 원동력이 됐다고 전했다. 시집 제목에 대해 “신발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을 받쳐주고, 묵묵히 삶의 무게와 길을 함께 견뎌내는 존재”라며 “성공보다는 과정의 소중함을, 속도보다는 동행의 가치를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점점고무신부터 청년 시절 부츠까지 신발을 곧 한 사람의 삶이란 흔적이자 삶 자체”라고 덧붙였다. 류 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충북에서 교직 생활을 해오다 퇴임 후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성인 대상 글쓰기 재능봉사를 시작했다. 또 수필집, 산문집 등 저서를 발간하며 한국창작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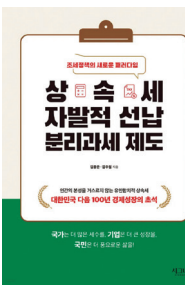
진철규(전자공학'75) 동문
‘자전거로 지구 한 바퀴’ 출간



자전거 여행자 진철규 동문이 70세를 앞두고 자전거로 세계일주를 완성하고 2019년 미국 대륙 횡단을 시작으로 2026년 아프리카 대륙 종단까지 10년에 걸쳐 이어진 세계일주 여정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최근 출간한 여행에세이 ‘근본 없던 여행자 토니의 자전거로 지구 한 바퀴’에는 타이어 펑크도 못 때우던 초보 라이더에서 세계를 누비는 자전거 여행자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성찰, 그리고 지구 한 바퀴를 완성하기까지의 생생한 기록이 담겼다. 1957년 제주에서 태어난 진 동문은 모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세계를 무대로 뛰는 세일즈맨이 되어 청춘을 보냈다. 50세에 경제적 은퇴를 선언하고 2010년 자전거에 입문해 국내 자전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2019년 미국 대륙 횡단을 시작으로 북위 40도를 따라 지구 한 바퀴를 돌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2022년 포르투갈에서 조지아까지 유라시아 횡단, 2023년 중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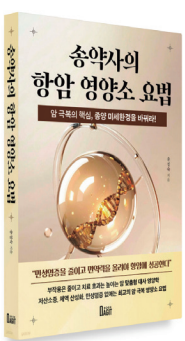
아 실크로드와 파미르 고원, 2024년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베이징까지 몽골 고비 사막 종단, 2025년 남미 파타고니아 종주를 했다. 2026년 6개월간의 아프리카 대륙 종단을 끝으로 마침내 자전거로 지구 한 바퀴를 완성했다. 마침내 10년에 걸친 지구 한 바퀴 여행의 꿈을 이룬 것이다.

김중운(체육교육'80)동문
‘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 출간...



국내 청구업계 1위 알레르망의 대표인 김중운 동문이 약 10년간 연구해 온 새로운 상속세 개혁 모델을 담은 ‘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를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와 공저로 출간했다. 김중운 동문은 “대한민국이 다시는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재정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결국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고령화와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조세 구조만으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상속세 제도를 약 10년간 연구했다. 이를 정책 수준으로 구체화 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한국재정학회 회장)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는 실제 제도 도입을 전제로 제도 설계와 세수 효과, 기업 승계 안정성, 자본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상속세 및 기업 승계 제도를 비교 분석해, 세수 효과, 기업 승계 안정성, 자본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실제 제도 시행을 가정한 20년 장기 시뮬레이션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상속세 개편 논의와 차별성을 갖는다. 핵심은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과세 시점과 납부 주체, 과세 방식을 재설계하여 조세회피보다 성실 납세가 더 유리하도록 유인을 바꾸자는 것이다. 김중운 동문은 모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알레르망을 창업 경영하며 국내 청구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현재 한국증권기업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송정숙(약학'82) 동문
“암은 중앙 미세먼경이 좌우”...
항암 영양소 요법 출간



40여 년간 약국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온 송정숙 동문이 신간 ‘송약사의 항암 영양소 요법-암 극복의 핵심, 중앙 미세먼경을 바꿔라’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비만·당뇨·골관절 약순환 고리를 끊다’, ‘염증 정복’ 등에 이어 선보이는 다섯 번째 저서로, 암 발생과 재발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중앙 미세먼경’과 만성염증에 주목해 영양소를 활용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암세포 자체보다 암이 자라기 쉬운 체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암 예방과 치료 후 재발 방지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주요 항암치료의 원리와 한계, 부작용 관리법을 소개하고, 항암치료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 요법과 면역력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다뤘다. 송정숙 동문은 모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40년 넘게 약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부산 동래구 광제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약사회 보훈이사, 팜스임상영양약학회 임상강사로 활동 중이다. 블로그를 통해 임상영양과 질환 관리에 관한 학술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으며, 질병의 근원을 이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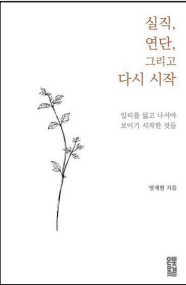
영양소를 활용한 건강 회복 방안을 연구·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정균영(철학'83)동문
‘인문예술로 만나는 건축과 도시 공간 이야기’



‘인문예술로 만나는 건축과 도시 공간 이야기’는 건축과 도시를 공학과 구조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삶과 기억, 예술과 사회를 품은 공간으로 다시 읽는다. 저자는 문학·영화·음악·회화가 지 끌어와 거리와 광장, 골목과 건축물에 스민 시대정신과 인간의 관계를 짚는다. 도시와 건축은 이 책에서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감정, 정체성이 얹히는 장으로 놓인다. 정균영은 공간을 설계도와 구조물의 관점에만 가두지 않고 인간의 삶을 담는 그곳이자 우리 삶의 거대한 캔버스로 해석한다. 건축과 도시가 공동체를 만들고 기억을 남기며 권력과 자본의 무대가 되는 과정을 문학·영상·음악·회화의 사례와 겹쳐 보여주는 방식이다. 정균영 동문은 모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IT 회사 경영과 공공영역 활동을 거쳤다. 현재 지속가능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도시談場’ 포럼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건축과 도시를 지속가능성과 사회 변화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책이 겨냥하는 독자는 건축 전공자에만 머물지 않는다. 도시의 불평등과 주거 문제, 공동체 해체, 환경 위기까지 함께 바라보며 익숙한 거리와 건축물을 삶의 조건과 사회의 거울로 다시 보게 한다. 현재는 지속가능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도시談場’ 포럼 대표, (사)소비자주권시민연합의 ESG위원회 위원장,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ESG경영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염재현(경제'93)동문
‘실직, 연단, 그리고 다시 시작’ 출간



마흔 살 가량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실직, 연단, 그리고 다시 시작’은 마흔에 실직을 겪은 한 가정이 1년 4개월을 거쳐 다시 삶으로 걸어나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저자 염재현 동문은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직장인으로 살아왔다. 처음 직장을 얻던 날, 세상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것처럼 기뻛고, 매달 받는 월급을 모아 미래를 그렸다.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로 집을 마련해 가정을 꾸렸다. 삶은 큰 굴곡 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마흔 살 가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계약 만료를 하루 앞두고 해지 통보를 받으며 일터를 잃었다. 이 책은 실직의 시간을 지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기도 하다. 염 동문은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노란우산공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근무했으며 코레일투자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장을 거쳤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해외투자팀장으로 재직 중이며 중대부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재방기능사, 제과기능사, 바리스타2급 자격증도 갖고 있다. 이에 앞서 염 동문은 지난 4월 ‘염재현의 지구촌 이야기’를 출간했다. 이 책은 글로벌 펀드매니저가 해외투자를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한 이야기들이다.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새 내려간 이웃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염재현의 지구촌이야기》는 투자업계에 있지 않은 독자에게 그 세계에 대해 들려준다. 여의도 금융가의 진솔한 생활상을 보여준다. 마치 저자와 그곳에 함께 있는 듯하다. 화려한 성

공담 대신 솔직한 실패담과 이를 극복해낸 눈물이 있다. 복잡한 투자 이야기 대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애정 어린 눈으로 그려낸다.

박성일(사진'93)동문
소설 ‘마지막 접속’ 출간



“만약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며, 진실이 사랑을 다치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 28년간 사진기자로 활동해온 박성일 동문이 두 번째 소설 ‘마지막 접속’을 펴냈다. 2020년 첫 소설 ‘나는 보헤미안을 사랑한다’ 이후 6년 만의 장편이다. 모교 사진학과를 졸업한 박동문은 이번 작품에서 외계 문명과의 교신이라는 SF적 설정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와 사랑, 질문의 의미를 탐색한다. 소설은 인간 연구자 이도현이 외계 존재 ‘노에마’가 보낸 신호를 마주하면서 시작된다. 그는 외계 문명과 인류의 미래, 그리고 개인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통쾌해한다. 작품은 화려한 우주 전투나 과학기술 묘사보다 윤리와 철학, 인간관계에 무게를 둔다. 무수한 지적 생명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인간이 끝내 놓지 못하는 질문과 감정을 따라간다. 박 동문은 첫 소설 출간 이후 6년 동안 천문학과 우주, 천파 과학, 외계 지성 등을 공부하며 작품을 준비했다고 한다.

전시

신재남(회화'70)동문
개인전 ‘감성의 해방’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갤러리 콘테로스코리아(C.R.K)가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재남 화백 개인전 ‘감성의 해방’을 열었다. 신 동문은 모교 중앙대 예술대학 회화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을 나왔다. 개인전 60여회, 단체전과 기획전 1450여회에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진장을 맡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독립기념관, 백범기념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소장돼 있다. 극사실주의적 묘사와 한국적 초현실주의로 알려진 신 화백 작품에는 인체 실루엣이나 동경의 흔적 같은 구상 요소와 추상적 색면이 한 화면에 공존한다.

이정태(조소'04)동문
‘39, 40’개인전

조각가 이정태 동문이 7월 29일까지 수원 팔달시 정조로에 위치한 실험공간 LZ에서 4년만의 개인전 ‘39, 40’을 열었다. 전시 제목인 ‘39, 40’은 작가가 서른아홉과 마흔을 지나며 겪은 시간을 가리킨다. 가족의 죽음과 아들의 탄생을 경험한 이후 삶과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이러한 변화는 작업의 구조와 공간을 다루는 방식에도 이어졌다.

Air Pollution Sampling & Monitoring Equipments

대표이사 / 공학박사 **김 중 구** (무역학과 '81)

경기도 의왕시 고래들길 49 KNJ빌딩 (오전동)
Tel : 031-451-7082(대) / Fax : 031-459-7321
Email : knj@knj-eng.co.kr / Web : www.knj-eng.co.kr

KPMG. Make the Difference.

삼정KPMG는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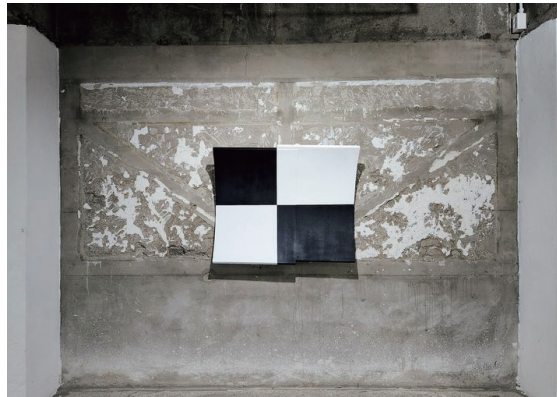
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감사·세무·재무·경영자문 전 영역에 걸쳐 중앙대 동문 파트너 19명을 포함한 300여 명의 동문 회계사 및 전문가가 삼정KPMG에서 함께 뛰고 있습니다. KPMG삼정회계법인 동문회 – 회장 신장훈 (무역'90/컨설팅(CS2)부문 대표)



불확실한 경제·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엄격해지는 회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도전과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고민에 공감하고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삼정KPMG 4,300여명의 전문가는 138개국 276,000명 KPMG Global Network와 연계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이 지면에 동문여러분의 광고 협찬을 기다립니다.”
연간 72건의 광고가 필요합니다.



대표작 '39, 40'는 두 장의 휘어진 베니어를 하나로 접합한 작품이다. 서로 다른 두 구조는 하나의 화면 안에서 새로운 중심을 형성하며, 분리보다 연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Black on White', 'Orange on White' 역시 색 자체보다 구조에 초점을 맞춘 작업이다. 여러 장의 베니어를 겹치고 결합한 화면은 하나의 중심을 향해 수렴하기보다 결합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모교 조소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이정태 동문은 2016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7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성남큐브미술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획전과 그룹전에 꾸준히 참여하여 작업세계를 확장해 왔다.

조재윤(음악예술'11) 동문 '빛으로 그린 그림(Photography)' 개최

배드보스(BADBOSS) 조재윤 동문, 그는 현대미술을 기반으로 회화와 사진, 시각예술을 넘나들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온 아티스트이다. 이번에는 9월 9일까지 사진으로 개인전을 열어, 그의 창의적 열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빛의 예술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빛으로 그린 그림(Photography)'에서는 팔아트 작가라는 익숙한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카메라를 벗 삼아 일상의 빛과 시간, 나아가 감정을 기록한 사진 작업을 선보인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하나의 회화처럼 완성된 사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빛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감각과 사유의 시간을 제안한다. 조 동문은 모교 중앙대 음악예술학부를 졸업하고 연세대 광고홍보대학원을 거쳐 예술과 대중을 연결하는 다양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프랑스 카루젤 드 루브르 올해의 작가상, 오스트리아 구스타프 크림트 어워즈, 일본국제미술공모전 대상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팔목할 수상과 다양한 전시를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사진 개인전 '빛으로 그린 그림 Photography'는 8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 신사동 북촌문화공간 피센시오(FISENSIO)에서 개최된다. 전시에서는 배드보스가 오랜 시간 필름카메라와 암실 작업을 통해 완성한 사진 작품을 선보이며, 배드보스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바탕으로 SHAFT COFFEE가 상품화한 전시 기간 한정 커피 'HOLIDAY'도 함께 선보여, 판매 수익금 절반은 예코나무에 기부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활동에 사용된다.

사진학과 다큐동아리 사진집단 '현장' '기록된 기억 40+' 사진전 열려

사진학과 내 다큐동아리인 사진집단 '현장'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 '기록된 기억 40+'을 6월8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용산구 KP Gallery에서 열었다. '현장'은 1985년 5월 창립전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생생한 현실을 카메라 앵글에 담은 대학 사진 운동의 주역이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은 '기록된 기억 40+'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과거의

원본 사진들을 현대적 기술로 복원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유일하게 남은 두 권의 사진집과 일부 필름을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작업은, 단순한 이미지 조형이 아닌 철저한 '복원과 보정'에 초점을 맞춘 시리마스터링 기술이 도입됐다. 빛바랜 고전 영화를 리마스터링해 화질과 음질을 개선하듯, 유실되어 가던 시대의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려낸 결과물이다.특히 과거 스무 살의 눈으로 시대를 기록했던 졸업생들과, 현재 청춘의 눈으로 오늘을 기록하는 재학생들이 시공간을 초월해 만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었다. 출신 작가들이 출품한 작품들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뜨겁게 담아낸 흑백사진들로 구성됐다. 이에 맞서는 재학생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일의 긴박했던 현장 모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사회적 현실을 포착한 사진들을 선보였다. 4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선후배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의 목격자' 역할을 수행해 온 셈이다.

공연

김동원(성악'94) 동문·정승기(성악'98) 가곡 공연... 슈만·브람스 명곡 연주

로베르트·클라라·요하네스... 세 거장의 사랑과 상실 부른다. 국내외 오페라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테너 김동원, 바리톤 정승기 동문이 8월 7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행버홀에서 피아니스트 노성희의 반주와 서채아의 연주를 곁들여 가곡 공연 'Drei Blicke'를 개최했다. 독일어 'Drei Blicke'는 '세 개의 관점'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전반에 작곡가 3인과 테너, 소프라노, 바리톤이라는 세 가지 음역이 나란히 등장해 극을 이끈다.테너 김동원 동문은 모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후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마쳤다. 프라이부르크극장, 카셀국립극장, 뮌헨국립극장, 바젤오페라하우스 등 유수 극장에서 주역 가수로 활약했고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남자신인상, 제18회 남자주역상(2025)을 휩쓸었다. 바리톤 정승기 동문은 모교 음악대학 성악과,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밟았다. 동아음악콩쿠르, 노르웨이 퀴소나 국제콩쿠르, 프랑스 툴루즈 국제콩쿠르 입상 실적을 자랑하며 유럽 주요 극장에서 500회 이상 주역을 훌륭히 소화하고 현재 모교 강단에 선다.

박애리(한국음악'95) 주연 강원도립극단,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 명창

강원도립극단이 2026년 올해의 공연으로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를 선보이는데, 동국대 교수인 박애리 동문이 주연을 맡았다. 우리 소리극 <까만 인절미>는 180여 년 전 조선 후기, 기해박해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한국 천주교회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부모, 최경환(프란치스코)과 이성례(마리아)가 신앙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끝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번 공연은 총 52명(출연진 14명, 제작진 38명)의 대규모 인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특히 2019년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2013년 KBS 국악대상에 빛나는 박애리 동문이 주인공 '이성례'역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제된 판소리를 넘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울려 퍼지는 그녀의 깊은 소리는 작품의 예술성과 몰입감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조문주(음악국'05)동문 적벽가 완창 '그러하다'

소리꾼 조문주 동문이 '조문주의 성음 - 적벽가 완창, 그러하다'를 6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문화의집 KOUS에서 선보였다. 오랜 시간 적벽가를 익히고 다듬어온 조문주가 한바탕의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는 완창 무대다. 조문주 동문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전수자다. 모교 국악대학 및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9회 춘향국악대전 종합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판소리를 중심으로 창극과 무용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온 그가 이번에 선보이는 동편제 박봉술바디 적벽가는 박봉술-안숙선-한승식-조문주 계보로 이어진다. 삼국지 적벽대전을 바탕으로 웅장한 전투 장면과 수많은 인물의 성격, 변화무쌍한 음악적 구성이 어우러진 판소리다. 특히 힘찬 성음과 긴 호흡, 폭넓은 표현력을 요구하는 작품으로 소리꾼의 내공을 가능하는 대표적인 완창 레퍼토리로 꼽힌다.

황지연(성악'08) 동문 모교 국제처에서 초청 독창회 개최

모교 국제처에서 2026학년도 국제 여름단기과정(International Summer Program, ISP) 특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월 29일(월) 본교 아트센터에서 소프라노 황지연 동문 초청 독창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 여름단기과정 참가 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학업 경험과 함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국제처는 지난 6월 25일부터 2026학년도 국제 여름 단기 과정을 운영 중이며, 미국·영국·일본·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약 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본교에서 수학 중이다. 참가 학생들은 전공 수업과 함께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모교 성악과에 수석 입학한 후 미국 맨해튼 음대(Manhattan School of Music in New York)와 미네소타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소프라노 황지연 동문이 무대에 올랐다. 황지연 동문은 현재 미국 Texas A&M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성악 및 합창 전공 교수이자 오페라 프로그램 디렉터로 재직하며 교육과 공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FORTE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NATSAA 미국 북중부 지역 전체 우승 및 William Vennard Award 수상 등 주요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본교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현 교수가 함께해 무대의 완성도를 더했다. 김현 교수는 현재 미국 University of Oklahoma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연주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의외 참 5000장학금 우리은행 1006-701-494649 예금주 (재)중앙대학교동문장학재단 ※무통장 입금시 성함과 입학년도(또는 전공학과)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복잡한 금융? 이제 그만 이별할게.

오늘부터 나는 슈퍼SOL로.

슈퍼SOL로 즐기는 **다양한** 혜택

가입만 해도 누구나
결제할수록 더 크게



런칭 이벤트



결제 이벤트



내 손안의 금융 우주

신한 super SOL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60810-Exn-001호 (2026.08.10~2027.08.09)

1Lead by  신한카드